

제3차 한국인삼약초산업 전략화 세미나

뉴라운드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 인삼 산업 정책의 현황

김 재 수 국장 / 농림부 농산물유통 국장

인삼산업 육성방향

2002. 11. 29

농 립 부

(농산물유통국)

“농업은 생명산업이다”

I. 인삼산업 육성대책 기본방향과 추진계획

< 기본 방향 >

- 고품질 원료삼의 안정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구조개선
- 신세대취향에 맞는 제품개발로 내수 기반 확충
- 시장별(Target Market) 수출전략의 차별화로 수출 확대

가. 고품질 원료삼의 안정 생산기반 구축

- 경작농가의 농약안전사용 의식 확립
- 「표준경작방법」 준수 지도로 고급 원료삼 생산 증대

나.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

-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공정·투명거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
- 고려인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구매기회 확대

다. 연구·개발기능 강화 및 기술보급 인력 확충

-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인삼에 대한 국가연구기능 재정립
- 주산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재배기술지도 및 보급에 적극 활용

라. 생산자단체 등 기관의 운영활성화 및 공동협력사업추진

- 고품질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사업 등 추진
- 인삼재배 남북한 공동협력사업 방안 강구

1. 고품질 원료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

가. 현 황

-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차광시설재배로 타작물에 비해 단위당 생산비가 높아 인삼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됨
- 호당 평균재배면적 0.54ha(2000년), 생산비 5,503천원/10a(4년근)

- 경작농가의 농약 안전사용의식이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지장을 초래
 -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 24개 품목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였으나, 농가가 관행에 의한 농약사용에 익숙
 - 수입국이 자국민의 식품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안전한 원료삼 확보가 매우 중요
- 고급홍삼(1·2등급)은 수출호조이나 초작지 부족 및 수량위주의 경작으로 우량 원료삼 생산부족
 - 차광시설 개선 유도로 적변삼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난발삼 등으로 인한 고급 수삼 생산 감소('90~'94 : 21.8% → 2000 : 12.9%)

나. 추진대책

(1) 고품질 안전 인삼생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

□ 청정재배단지 개척 및 연작장해 해소대책 추진

- 민통선 북방, 전남해안 등 신산지 개척 확대(기 확보 191ha)
 -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가능면적(79천ha)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
 - ※ 대상지 선정시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여 식재면적 임대 지원
- 연작장해 해소 경작방법의 농가보급 확대로 생산비 절감
 - 연작지의 예정지역 관리방법 기술지도
 - 밧사미드 토양 훈증제 처리비용(2,500원/평) 지원

□ 고품질 안전 원료삼 생산지도 및 지원

- 예정지 관리, 차광시설 설치 등 표준인삼경작방법 준수 지도 및 식재자금의 연차적 차등 지원(5,000원/칸 → 5,000~13,000)
- 현 「토직묘삼」 등 재배법을 「양직묘삼」으로 전환, 우량묘삼 생산 확대
- 청정인삼생산을 위한 산양삼 및 장뇌삼 재배법 보급 및 지원
 - 산림청에서 “식·약용식물 재배법” 보급 중
 - 장뇌삼 재배 지원 : 1,440백만원(기확보 지원 중)

□ 단계별 안전생산체계 확립

-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사용지도 및 교육 강화
 - 농진청, 농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약안전사용교육
 - 전 경작농가에 대해 주기적인 농약안전사용기준 유인물 제작·배포
- 경작예정지역 선정시 중금속 오염지 등 부적합지는 사전 배제
 - 예정지역 신고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분석 실시
- 인삼 「경작기술지도단」 설치 운영, 「표준경작법」 준수 지도방안 강구
 - 구성 : 농진청, 인삼조합, 농업기술센터 공동
 - 지도방법 : 집합교육, 현지 순회교육 등
 - 식재자금을 「표준경작법」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
- 생산에서 유통까지 각 단계별 안전성 검사 강화(인삼검사소, 농관원)
 - 묘삼 및 수삼 : 채굴, 판매 전 표본검사
 - 뿌리삼류(홍삼, 태극삼, 백삼) : 지역별, 제품별 표본검사

□ 고품질 인삼에 대한 「수삼품질인증제」 추진

- 소규모 경작자의 고품질 수삼 생산을 촉진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의 고려인삼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
 - 농관원에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경작 농가의 10%(생산량의 10%) 수준으로 확대

(2) 적정면적 확보와 생산성 향상 추진

□ 적정 재배면적의 유지 및 생산성 제고 대책 추진

- 수급전망 분석에 따른 적정면적 재배지도와 식재동향에 대한 농가 홍보
 - 수급동향의 철저한 파악으로 과잉생산 사전 억제
- 식재자금의 차등 지원을 통한 고품질 원료삼 생산 증대
 - 표준인삼경작방법 준수 경작자에 대해서는 식재자금을 우대 지원하여 고품질 원료삼 생산 증대

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추진

- 우량 신품종(천풍, 연풍) 보급 확대로 생산성 증대
 - 신품종 재배면적 증가 전망 : ('01) 24ha → ('05) 2,500
 - 유망계통(10개품종)의 농가적응력 시험 완료시 종자생산 지원
 - 재배기술 보급,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
 - 생산비 절감목표 : ('00) 5,503천원/10a(4년근) → ('10) 4,840
 - 식재 및 해가림시설 설치 등 주요 작업 기계화 : ('99)48%→(2010)80
 - 무인 전자감시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야간경비 관리비 절감
- ※ 지원방안 : 농업종합자금제부문에 포함 추진

2010년까지 경작규모별 차별화된 경영 지도(당해년도 식재면적기준)

- 1ha이상 경작농가(6 → 30%) : 가공용 원료삼 생산
 - 인삼제품 원료삼 9,000톤 생산 담당
- 0.3~1ha 경작농가(63 → 60%) : 일반거래용 수삼생산
 - 수삼 7,500톤 생산 담당
- 0.3ha이하 경작농가(31 → 10%) : 품질인증으로 우량 고품질 수삼생산
 - 품질인증 수삼 1,000톤 생산 담당

2.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

가. 현 황

- 포전매매 성행 등의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 개선 필요
- 전문건강식품판매점 위주의 판매로 소비자는 고가품으로 오인
- 타국산 저급품 인삼류가 밀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, 제품원료삼으로 사용되어 수급 및 가격질서 교란

나. 추진계획

(1) 수삼의 표준거래규격 제정 보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

- 실제적인 거래 형태에 맞도록 표준거래규격을 지속적으로 정비·보완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
 -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기획연구과제로 추진(2001년 완료)
 - 연구결과 시범사업 추진 및 표준규격제정 고시(2002년말 농관원)

(2)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

- 인삼관련 제품의 종합정보망 구축
 - 해외시장 동향, 국내외 시장분석 정보제공, 인터넷사이트 지원 등
 - 농유공의 고려인삼 홈페이지(www.insam.or.kr) 지속 개편
 - 현재 6개 국어(한글, 중국어, 영어, 불어, 일어, 이태리어) 로 서비스
 - 수출진흥협회의 전자상거래(Cyber Market) 적극 추진
 - www.insam.or.kr의 국내장터를 통한 원료삼 직거래 활성화
-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종합홍보활동 지속추진
 - 고려인삼 Portal site(<http://www.insam.com>) 구축(2001년 완료 예정)
 - 고려인삼 도메인 등록 추진(2002년 현재 renshen.com.cn 등 37개 등록)

(3)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

- 인삼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
 - 유통단계 축소 및 수출전진기지 역할 부여
 - 설치계획 : 금산군에 인삼물류센터 설립추진 중
 - 규모 : 대지 19,000평 건평 3,000평(예산 250억원)
 - ※ 금산물류센터 설립운영결과를 평가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추진

□ 생산자단체(농협)의 계통판매망 확충으로 국내 수요기반 확대

구 분	연도별 확충 계획				
	'01	'02	'03	'04	'05
하나로 마트(2000개소)	900	600	500	300	300
신도불이 창구(600개소)	100	150	150	100	100
유통대리점 선정(21개업체)	21	-	-	-	-
농산물종합유통센터(6개소)	3	3	-	-	-

□ 인삼의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유통사업 적극 참여

- 인삼공판장 개설을 통해 유통의 투명화 추진
 - 대전 또는 수도권의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, 농협인삼공판장 개설추진

(4) 타국삼 불법·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

□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단속의 지속적인 강화

-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 및 단속에 활용
 - 인삼 연근 및 원산지 식별방법 개발 연구 중(농산물품질관리원)

□ 불법·부정유통 타국삼에 대한 단속 강화(관·민 합동)

- 검찰, 관세청 등 밀수단속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
- 각 지역 인삼협동조합에 밀수인삼 신고센터 설치
- 수입 인삼제품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강화

3.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·개발 체계 일원화 및 기능 강화

가. 현 황

- 현재 농림부 산하에 인삼관련 연구기관이 없음
- 농촌진흥청,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도 인삼분야 연구인력이 거의 없어 재배기술개발, 제품개발, 효능연구 등 연구실적은 미미함
 - 일부 주산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배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어려움(예 : 영주 인삼시험장(6명), 금산농업기술센터(4명))

나. 추진계획

- 그동안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수행하였던 공익적 기능의 연구업무를 분야별 특성에 맞게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에서 인삼연구 추진
 - 가공·유통분야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연구수행
 - '03년도 연구사업비 12억원 확보
 - 인삼 육종 및 재배기술관련 분야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수행
 - 인삼의 육종·재배기술 연구를 위한 전담과 신설을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
- 인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수품종,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인삼제품 개발 등 차질없이 추진
- 연구결과 보급에 농업기술센터 인력 적극 활용
 - 주산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의 전문교육 이수후 기술보급에 활용

4. 생산자단체 운영 활성화

가. 현 황

- 인삼수급 및 가격안정과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미흡
- 남북 공동협력 시범사업 추진 미흡

나. 추진계획

- 4~5년근 원료삼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계약재배 사업 추진
 - 2002년 : 가공용 수삼 구매자금으로 출하약정 사업시범 실시
 - 2004년 : 가공용 수삼 구매자금의 출하약정 사업 전면 실시 및 계약재배 시범사업추진
 - 2006년 : 4~5년근에 대해 농가희망량 계약재배 확산
- ※ 원활한 출하약정사업 및 계약재배 추진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「최저가격보장제」 추진

□ 인삼재배를 통한 남북한 공동협력방안 강구

- 북한의 인삼재배 현황 및 가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 수집
 - 2001년 「북한 인삼산업 현황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」 추진 중
 - 인삼연초연구원의 북한농업연구계획 27백만원
- 북한의 토지 및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 및 자재를 활용한 합작사업 추진
 - 남북한 공동 인삼포 경작으로 공동생산, 공동분배 추진
 - 남북한 공동 가공합작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
 - 북한지역 공동 시험재배 : ('02) 1ha → ('03 계획) 3ha

Ⅱ. 고려인삼을 세계일류의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

1. 수출 · 입 동향 및 시장 분석

<수출동향 분석>

- 인삼수출은 '90년 1억 6,500만불을 달성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79백만불을 수출
- 주요시장은 홍콩, 일본, 대만 등이나, 특히 세계 거래량의 70%를 차지하는 홍콩시장의 점유율(원형삼 기준)이 하락추세에 있음
 - 홍콩시장의 고려인삼 금액 점유비중(물량)
 - ('90) 24.4% (7.1%) → ('95) 17.2 (4.2) → (2000) 18.0 (3.4)

주요 수출시장 동향

◆ 인삼의 국제시장 규모는 4억6천만불 정도로 추정 ◆

<홍콩>

- '90년 초반까지 수입물량의 절반정도를 중국삼이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캐나다, 미국 등의 화기삼이 68%를 차지

<일 본>

- 인삼제품류 주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적극적인 수출 추진으로 한국산과 경쟁심화
-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인삼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유지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삼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잠식 우려

<중 국>

- 고려인삼의 잠재적 최대시장이나 자국삼보호를 위해 수입의약품 등록제도를 활용
- WTO 가입으로 규제완화가 기대되며, 미국 캐나다 등과 수출 경쟁 심화 예상

<미 국>

- 인삼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를 자국삼 보호의 일환으로 활용
- 시장규모가 큰 음료와 과자시장 및 인삼제품중 미국인이 선호하는 캡슐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강화

<대 만>

- 뿌리삼류 주 소비시장으로 소비자는 효능이 좋은 고려인삼을 선호하나, 판매상은 마진이 높은 중국산 선호

2. 수출 촉진 대책

가. 현 황

- 주수출국의 경기침체 및 중저가 타국삼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
- 수출시장 특성에 따라 가격 경쟁력 극복을 위한 저년근을 이용한 중저가 제품 개발을 통해 고품질 고가품과 차별화
- 인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 창출
- 서구인의 의식전환을 위해 해외의료기관을 통한 임상실험 필요성 증대
- 그 동안의 임상실험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 미흡

□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

- 한정된 대형 바이어(10명 이내)로 인해 수출협의 과정에서 국내 정보가 유출되고 덤핑 등 부작용 초래

나. 추진계획

(1) 수출상품 개발 등 수출업체 지원 및 수입규제에 능동적 대응

□ 수출시장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수출상품 개발

- 홍콩, 대만 등 수삼 또는 원형삼 형태 소비시장
 - 효능을 강조한 고급품(홍삼 등) 공급확대와 당밀절편삼, 스낵류, 파우치제품 등 소포장 대중소비품 개발
- 일본, 유럽은 농축액, 드링크, 차 등 2차 가공제품 소비시장
 - 독일 등 의약품 등록 추진 지원 및 서양인의 취향, 식습관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

□ 고려 인삼의 지리적 명성을 활용한 「인삼주」 브랜드화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추진

- 「꼬냇」 등 유럽지역 특화주류에 대응하는 「고려 인삼주」의 세계화 전략 추진

□ 수출물류비의 지속 지원 및 신규시장 개척업체 지원 확대

- 고려인삼캐릭터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 지원('02년 24억원)
- 국가별 의약품 등록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
 - 고려인삼캐릭터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속 지원
 - 2002년도 중국의약품 등록업체의 공식 등록비용 50%를 지원
- 중국의 수입의약품 등록 지속 지원
 - 등록 추진업체에 대해 자료 지원, 외교경로를 통한 지원 등 추진
- 신제품과 포장디자인 개발 관련자금 지원
 - 소요예산 : 「해외시장개척자금」에 포함 지원

□ 수입국의 수입규제에 능동적 대응

-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 철저로 해외시장에서 성가 확립
 -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출품에 대한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로 안전성 높은 제품 생산(농협 인삼검사소)
- 고려인삼의 국제식품규격화(Codex규격) 추진으로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수입규제하는 국가에 대한 유리한 협상 위치 선점

(2) 국가 상표를 통해 타국삼과 차별화를 위한 공세적 마케팅 강화

□ 고려인삼 캐릭터의 해외상표등록 지속 추진 및 홍보에 적극 활용

- 주 수출국 순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해외에서의 고려인삼 위조에 대응
 - (2001)15개국 → (2002)18 → (2004) 25
- 수출업체에 캐릭터 사용을 유도하고 고려인삼의 이미지 홍보에 활용
 - 캐릭터 사용업체에 포장비 등 물류비 지원으로 사용유도
 - TV 등 해외 언론홍보 등을 통해 고려인삼의 대표적 이미지로 각인

□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선진국 임상실험 추진

- 서구인의 의식구조에 맞는 수준의 임상실험을 추진
 - 2001년 한·캐나다 공동임상실험 실시(150백만원)
 - 당뇨병의 혈당조절을 위한 고려홍삼의 효능 연구결과 발표(10.28)
- 국제 학술계에서 결과를 인정받도록 임상실험 디자인 Know-how 축적
 - 국내외 임상실험을 통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

□ 국제 인삼세미나 개최로 고려인삼 효능 홍보 극대화(주관 : 고려인삼학회)

- 고려인삼의 효능연구결과 및 임상실험결과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 지원

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 추진

- 기존 인쇄매체 외에 STAR-TV 등 위성방송 CF 방영 추진 및 수출업체에 영상홍보물 제작 배부(2002 홍보예산 : 5.9억원)

- 주요수출국의 소비자 대상 특별판촉행사 개최(주관: 농수산물유통공사)
 - 수출시장을 권역별로 구분 매년 지속 실시(해외시장개척자금 활용)

(3) 수출과당 경쟁방지 및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

-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로 건전한 수출관행 발전 유도
 -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불공정업체는 수출물류비 차등지원 방안강구
 - 덤핑 등 행위시 수출진흥협회의의 추천 거부 의사 존중
- 「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」 운영 활성화
 - 가격덤핑, 성가하락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자율 협의체로 운영
 - 가격 덤핑, 품질관리 소홀 업체는 원료수매자금, 수출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
 - 시장정보 교환, 수출가격 조정 등 협의·조정 기능 수행
 - 수출진흥협회의의 자생력 향상 유도
 - 자체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조금 조성 유도
 - 장기적으로 단일 수출창구 역할 수행으로 수출 종합정보 관리
- 연구개발 및 홍보에 수출진흥협회의의 의견 적극 반영
 - 수출진흥협회의의 업체 의견 수렴과 조정 기능 활성화
 - 다양한 업계의 의견에 대한 통일된 의견 제시
 - 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병행한 고려인삼 이미지 홍보 병행 추진
 - 수출과 병행한 홍보로 고려인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
- 산·학·관·연의 협의를 통한 정보교환 촉진
 - 정부, 인삼학회, 농진청, 한식연과 수출진흥협회의의 정기협의
 - 국제 시장 및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교류
 - 소비자 기호 등 시장동향의 연구 반영 및 연구결과의 산업현장 적용
 -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학계 및 연구계에서 해결방안 제시